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병원 등 3곳 폐쇄·시설 1526곳 휴관

광주21세기병원·광주우편집중국 등 폐쇄
ACC 어린이체험관·공무원교육원 등은 휴관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21세기병원 등 3곳을 폐쇄하고, 시설 1526곳을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16번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22번 확진자가 근무한 광산구 광주우편집중국, 16·18번 확진자가 입원했던 광주21세기병원 등 시설 3곳을 폐쇄했다.

남구와 북구에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건강타운,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체험관 및 어린이 창작실험실, 북구 문화예술회관 등 5곳은 무기휴관 조치하고, 관내 209개 모든 유치원은 7일까지 임시휴관토록 했다. 16·18번 확진자의 거주지 주변인 광산구 초등학교 17개교와 유치원 6곳은 오는 17일까지 교육을 중단한다.

시는 또 관내 노인복지관 7곳과 종합복지관 20곳, 장애인복지관 7곳, 경로식당 27곳, 광산구 관내 청소년시설 5곳, 아동센터 24곳, 공부방 3곳, 체육시설 2곳, 푸드뱅크 3곳은 18일까지 휴관 조치하고, 광산구 도서관 9곳과 서구 도서관 1곳 등 도

서관 10곳도 당분간 휴관하도록 했다. 이 기간 모든 프로그램과 경로 식당 운영도 중단된다. 시는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에게는 간편식이나 도시락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관 종사자도 정상 근무해 비상상황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시설 인근에 있는 광주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도 임시휴원 조치했다.

시는 16·18번 확진자가 입원한 광주21세기병원의 환자들이 격리된 광주소방학교 생활관 인근 공무원교육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교육원에는 직원 34명이 근무 중이며,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 격리된다.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공무원 교육도 잠정 중단된다.

현재 교육원에서 중·장기 교육을 받는 50명은 다른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광주소방학교 생활관과 시설을 함께 쓰고 있어 불가피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휴원하기로 했다"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휴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는 광주21세기병원에서 확진자와 함께 입원한 환자 33명이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격리 중이다. 이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22번 확진자가 발생한 나주에서도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포함되는 나주 산포면의 마을 경로당을 폐쇄하고 마을과 대중교통 시설을 소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광주시, 신고센터 운영

광주시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6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 설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점매석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신고체제를 구축해 마스크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는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062-613-3740-3743)에 설치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불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 닫은 도서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따라 6일 오후부터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장덕도서관이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 등 1년간 공개

행안부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공기업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위,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6월 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 가운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인적사항을 비위 내용과 함께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까지 낱말이 공개된다.

채용비리 공기업 임원 정보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정보는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사·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가 정하는 기관에

서, 사·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사·도의 지방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기준도 정했다.

출자기관은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따랐고, 출연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해 자산규모 100억원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기관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공기업 추진 사업 중 다른 법에 따라 조사·심사를 거쳐거나 재단·예방·복구 지원과 관련된 경우 별도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는 타당성 검토 면제 추진절차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3월18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 광융합산업 성장 상승세 탔다

지난해 매출액 2조4787억
2018년 대비 7.7% 상승

광주 광 융합산업 매출액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광 융합산업 매출액은 2조4787억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고용 인원은 7802명으로 2.9%, 기업 수

는 284개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연도별 매출액 증감율은 ▲2014년 -12.8% ▲2015년 -4.7% ▲2016년 -4.6% 등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부터 소폭 증가해 지난해에는 확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100억원 이상 매출액을 달성한 기업 수가 2018년 27개에서 지난해 37개로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분야별 매출액 성장세는 광통신 분야 5165억원으로 17.1%, 광원·광전자 1조

365억원으로 11.4%, 광학기 6140억원으로 4% 증가했다.

광통신은 5G 기술 상용화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피피아이는 지난해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성과를 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한편, 광융합산업은 지난 2000년부터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비약적 성장 통해 지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뒤 2013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내외 여건 및 중국 등 후발국과 시장 경쟁 심화로 매출이 급락하다 최근 성장세가 둔화 추세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6개 기업 선정 마케팅 등 지원

전남도가 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도내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6개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은 4년 동안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최대 2억원), 기업 수요 맞춤형 자율 프로그램(연간 3000만원 이내), 민간 금융기관의 융자 및 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자격은 지난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면서 자·간접수출액 50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단 혁신형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면서 자·간접수출

액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한 기업은 다음달 2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직접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해 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처음 시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국민추천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